

이윤정&이정아 2nd 듀오콘서트 '건반 위의 발레'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피아노 선율로

내달 4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다음달 4일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피아니스트 이윤정과 이정아의 '건반 위의 발레' 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전주 한벽문화관 지역협력 무대공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문화재단, 한벽문화관 주관으로 마련된 무대이다.

피아니스트 이윤정과 이정아는 사제지간으로 25년만에 만나 2019년 피아니스트 이윤정이 이사장으로 있는 전주 문화공간 '이룸'에서 첫 듀오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두 번째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서로 서울과 전주에서 활발한 활동 중인 가운데 2주에 한번씩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단순히 연습만이 아닌 사제지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즐거움을 전했다.

독주자가 총곡을 연주할 때 그 특유의 리듬과 맛을 살리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함께 나누어 노래하니 더욱 균형감이 있어지고 두 피아니스트가 서로 퍼스트와 세컨드를 오가며, 페달은 누가 밟을 것인지, 서로의 터치를 예의 주시하며 템포를 맞추고, 연신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대화가 오가는 과정들이 다른 기악합주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마치 '결이 같은'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이번 콘서트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으로



이윤정 · 이정아 2nd 건반 위의 발레

P. I. Tchaikovsky
Fantasy Overture "Romeo and Juliet"
Nutcracker Suite Op. 71a
콘서트기타 키미킵

2020. 12. 4 (수) PM 7:30
전주한벽문화관

Fantasy Overture '로미오와 줄리엣'

호두까기인형 모음곡 7개 전곡 연주

프로그램을 구성해 1부에 Fantasy Overture 'Romeo and Juliet' 그리고 2부에 겨울 콘서트 하면 빠질 수 없는 호두까기인형 모음곡 7개 전곡을 Piano 4hands로 연주한다. 자칫 어렵게 느껴지는 발레 음악을 콘서트 가이드 키미킵의 흥미진진한 해설과 함께 오케

스트라가 아닌 피아노 듀엣으로 차이코프스키의 다양한 색채감 있는 음악을 연주 무대로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피아니스트 이윤정은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전주기전대학교 군산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이음음악협회 예술총감독을 맡고 있으며 문화공간 '이룸' 이사장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연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최근 사단법인 THE문화를 설립,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피아니스트 이정아는 선화예중·고를 실기우수생,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전체수석,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석·박사를 만점으로 졸업한 인재로 한음음악콩쿨 1위, 루마니아 디누 리파티 국제콩쿠르 세미파이널, 음연,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세대 콩쿨 등 다수의 콩쿨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서원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트리오 다음, 다변양상들의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두 피아니스트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겨울에 듣는 러시아 음악'으로 작으나마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전석 초대로 준비했다"며 "많은 지역민들이 오셔서 문화 향유의 시간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우리들의 경제이야기'

전은 장학문화재단 청소년 유튜브

우석고 정석브라더스팀 대상 수상

남원국악예고 F4 등 2팀 최우수상

전주영생고 영생고 나가신다, 우수상

(재)전북은행장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25일 제2회 우리들 경제이야기 JB청소년 유튜브 공모전(UCC)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유튜브 세대인 청소년들이, 다소 어려워 하는 경제 개념을 스스로 UCC 제작 및 활용을 통해 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경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5개 팀이 선발됐으며, 영예의 대상과 상금 100만원의 수상팀은 우석고등학교 정석브라더스팀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에 남원국악예고고등학교 F4팀,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경제해현팀, 우수상에 전주영생고등학교 영생고 나가신다팀, 그리

고 장려상 합영여자중학교 제이콥(Jacob)팀에 전북은행장문화재단 이사장 표창장과 상금이 포상으로 주어진다.

대상을 받은 우석고등학교 정석브라더스팀의 한 학생은 "공모전은 대부분 전국 대상으로 하는데 전북은행에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다"며 "평소에 취미로 했던 유튜브 제작에 대상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구 이사장은 "유튜브 공모전에 많은 팀이 참여해줘 감사하고 5개 팀의 수상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장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장학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문화활동 지원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JB인문학 강좌, 3D프린터 지원사업,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재양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윤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나의 삶, 나의 이야기' ... 전주대 · 안골노인복지관, 수강생 작품 전시회

전주대와 안골노인복지관은 공동으로 '나의 삶, 나의 이야기' 프로그램 수강생의 시 14개 작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노송천노인복지관에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안골노인복지관에서 열린다.

전주대 은다리 지역문화센터가 주관한 '나



의 삶, 나의 이야기'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소 글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참가자가 자서전과 시를 쓰며 글쓰기를 배우고 각종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다.

박주중 안골노인복지관장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전시가 조심스러운 시국이지만,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인 만큼 어르신들 작품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소외계층이자 취약계층인 중장년·노년층의 자긍심 고취와 자기계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나의 삶, 나의 이야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앞으로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백진우 은다리 지역문화센터장은 "'나의 삶, 나의 이야기'는 만족도와 성과가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내 기관 및 단체 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유입을 위한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다리 지역문화센터는 작품 전시 외에도 '은다리 인문 아카데미'와 '소담소담(小談笑談)' 등 다양한 인문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